

2008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재해자수 및 재해율

- 재해자수 : 95,806명(전년동기 대비 5,659명(6.3%) 증가)
- 재해율 : 0.71%(전년동기 대비 0.01%p(1.4%) 감소)

• 사고성 사망자수 및 사망만인율

- 사고성 사망자수 : 1,448명(전년동기 대비 65명(4.7%) 증가)
- 질병 사망 포함 사망자수 : 2,422명(전년동기 대비 16명(0.7%) 증가)
- 사고성 사망만인율 : 1.07(전년동기 대비 0.03p(2.7%) 감소)
- 질병 사망 포함 사망만인율 : 1.80(전년동기 대비 0.12p(6.3%) 감소)

• 업무상 질병자수 및 질병발병률

- 업무상 질병자수 : 9,734명(전년동기 대비 1,738명(15.1%) 감소)
- 업무상 질병발병률 : 0.07%(전년동기 대비 0.02%p(22.2%) 감소)

• 주요 사업별 재해감소 성과

- 3대 다발재해 집중관리 : 47,804명(전년동기 대비 3,858명 증가)
- 전도 : 2,296(14.1%) 증가, 추락 : 2,193명(15.8%) 증가, 협착 : 631명(4%) 감소
-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감독 : 재해자 1,089명(10.8%)·사망자 40명(14.5%) 감소
- 클린사업 : 재해자 544명(31.1%)·사망자 9명(36%) 감소
-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 재해자 27명(13.9%) 증가
- 안전관리 국고대행사업 : 재해자 3,938명(67%)·사망자 43명(72.9%) 감소



외국인 근로자용 건강진단개인표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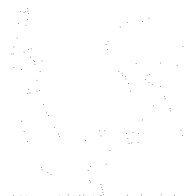
- 건강진단 결과를 스스로 이해하고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노동부는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어로 된 건강진단 결과를 받아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10개 자국어로 건강진단 개인표를 보급한다고 1월 23일(금)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한글로 된 결과를 통보받아 스스로 이해하고 건강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2008년 11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47만 여명(고용허가제 기준)이며, 취약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매년 100여명이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있으며, 2006년 TCE 중독사망, 2008년 DMF 중독(3명) 등과 같이 직업병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용 건강진단개인표를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127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5개소)에 보급하여 건강진단 시 자국어로 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 스스로 출력·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다. 또한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매월 1-2회 외국인노동자의 집을 방문하여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 올해 산업재해 10,000명 줄인다”

- 100,000여개 사업장 선정, 기술·재정 지원 등 산재예방 집중 관리

노동부는 사고성 재해 위험사업장(추락, 협착, 전도 등 3대 재해 및 사고성 사망 재해)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금년 중 사고성 재해 10,000여명을 줄이기로 했다.

1월 28일(수) 발표한 “2009년 재해예방 시행계획”에 따르면 재해가 많은 22개 업종(제조 17개, 기타의 사업 5개, 건설 6개 공종) 100,200개 사업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당해 사업장에 대해 교육, 기술 및 재정지원, 점검(감독) 등 일련의 정책수단을 최대한 연계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집중한다는 전략 아래 금년 한해 총 1,955.8억(시설개선용자 1,000억, 클린사업 740억, 기술지원 215.8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 집중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2000년 이래 재해율이 0.7%대에서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산재감소 추세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20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해비중이 큰 3대 다발 재해를 향후 5년(2008-2012)내 2007년(4만여 명)에 비해 절반수준(2만여 명)으로 줄이기로 한 중장기 전략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기업들의 산재예방 투자가 위축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노동부 MI 새롭게 변경

- “고용과 화합”을 상징하는 새 MI(Ministry Identity) 발표

노동부는 부처 상징(Ministry Identity)을 새롭게 바꾸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MI 변경은 일자리 나누기, 노사화합 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문제의 주무부처로서 새로운 이미지를 확립하고 각오를 다지는데 목적이 있다.

노동부의 새 MI는 두 사람이 어우러져 알파벳 ‘e’를 만드는 형상으로서 “노와 사”, 국민의 화합을 통해 신명나게 일자리(employment)를 만들고 경제(economy)의 원동력이 됨을 상징한다. 또한 인터넷 및 디지털(electronic)을 의미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의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노동부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노동부는 2월 27일(금) 오전 10시 30분 과천청사 본부 현판식을 개최하여 새 MI를 공식적으로 공표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도 새로운 MI로 변경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가 모든 국정과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고용과 화합을 상징하는 새 MI를 통해 일자리 주무부처로서의 비전과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